

번호 III-7

제 목	국문	NIOSH 스트레스 조사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영문	Reliability of NIOSH Generic Stress Questionnair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경용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영문	Kyung Yong Rhe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역 학 ()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2월				

1. 연구 목적

1) 일반적 목적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관련 스트레스 조사표의 한국어판 개발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관련 스트레스 조사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파악

2) 구체적 목적

-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련 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 조사
-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련 개념의 하위 차원 검증
- 작업관련 스트레스 개념 타당성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적용 결과 비교
- 업종별 직종별 작업관련 스트레스 현황 분석

2. 연구 방법

1) 한국어판 조사표 작성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관련 스트레스 조사표의 번역 및 역번역

2)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 모집단: 전국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체의 종사 근로자
- 표본규모: 근로자 2000명(사업체 250개소)
- 2회의 예비조사 실시(1차: 100명, 2차 100명)
- 표본추출방법: 2단계 층화 계통추출(사업체, 근로자)
- 층화 기준: 표준직업분류(중분류), 표준산업분류(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및 사업체 규모(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1.96%

3)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와 훈련된 면접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

3. 연구 결과

작업관련 스트레스 조사항목은 일상생활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제외한 총 19개 하위 개념들로서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집단내 갈등, 집단간 갈등, 집단 결속, 직업미래의 모호성, 주관적 통제정도, 고용기회 결여, 직속상관의 사회적 지원, 동료의 사회적 지원, 가족친구의 사회적 지원, 양적 작업부담, 작업부담의 변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저조한 기술활용도, 정신적 부담, A형 인성, 자아존중, 신체화 증상 및 직무만족도 등이다. 이 중에서 주관적 통제정도의 경우 직무통제, 의사결정 통제, 물리적 환경통제, 자원통제 등의 하위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

이상의 작업관련 스트레스 조사항목들을 측정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미국 근로자들과 한국 근로자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내적 일관성을 갖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작업관련 스트레스 항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업부담의 경우 11개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85:0.79). 그러나 주관적 통제 정도를 측정하는 16개 질문의 내적일관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0.90:0.92). 반면 정신적 부담을 측정하는 5개 항목은 한국의 경우 0.1988로 질문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미국: 0.71). 또한 A형 인성의 측정하는 20개 항목의 내적 일관성도 미국의 0.85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0.63으로 분석되어 역시 내적일관도가 매우 낮았다. 그 외의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내적일관도를 보여주는 Cronbach Alpha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해당 개념을 반영하는 질문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적 부담과 A형 인성의 경우에는 개별 질문을 삭제하였을 경우에도 타당성을 유지할 만큼 내적일관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스트레스원의 측정 항목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원의 하위 차원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갈등의 경우 3개, 직무자율성의 경우 4개, 작업부담의 경우 2개 등의 하위 차원이 추출되었다.

4. 고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작업관련 스트레스 조사표에 포함된 스트레스 관련 개념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스트레스원들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원은 급성 반응을 유발하고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서 질병을 야기하는데, 급성 반응은 개인적인 특성과 일상생활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사회적 지원 등에 의해 완화되는 모델링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직접 질병을 야기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건강영향을 받는 것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러한 모델링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원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표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표가 한국 근로자에게도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트레스원을 측정하는 각각의 질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내적일관도를 기준으로 한 타당성이 A형 인성과 정신적 부담 항목에서 매우 낮았으며, 이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조작적 정의의 차이 등을 규명하는 추가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별 스트레스원들의 하위 차원이 도출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스트레스원을 보다 세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